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 및 원·하청 근로자 차별 해소 실천 우수 기업 탐방'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으로 지역발전과 갈등해결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안정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특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원·하청 근로자 차별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요요 신성하게 주어 진 노동권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야 할 수 없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할 수 있다. (편집자주)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구축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일선 기관으로 대민 봉사의 참범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완도지사. 농어민과 직접 부대끼며 현장 이곳 저곳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 관리 시설물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느라 직원들의 하루는 결코 길지 않다. 4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은 오늘도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을 비전으로 삼고 농어촌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선도 역할을 사명(mission)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는 해남·완도군의 지역개발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모토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개발 방향이므로, 해남·완도지사는 해남군(5지구), 완도군(6지구)이 역점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남군 송지면 송지2리, 화원면 화원리, 마산면 세계골

역, 삼산면 삼산두륜리, 완도군 고군면 청학리, 금입을 다시마리, 금당면 금당리 등을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지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지역민의 의견 청취와 해당 군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 년 계획 대비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촌용수관리사업 44억원, 생산기반정비사업 101억원, 농지은행사업 150억원, 지역개발사업 121억원, 에너지효율사업 등 기타사업으로 90억원으로 총 15개사업 5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중 히트펌프 및 인버터지원사업은 해남군과 완도군에 53여개 사업비 72억원(국고 60%, 지방비 20% 여가 20%)의 위·수탁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대비 5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절감하여 양산여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여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완도지사는 또 안전한 농업용수 보급을 위해 군구제 말단부에도 2단 간이양수장 3개소를 설치하여 송지면 가차리 일원에 일일 6,480톤(약 100ha 농경지)의 용수를 공급하여 가뭄해갈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진도지역에 가뭄이 심하여 영산호, 영암호와 연결된 금호호 여유수량을 해남군 문내면 지역을 통과하여 진도군 둔내면까지 7.8km에 이르는 임시관로를 설치하여 일일 1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남군 문내면 지역민을 설득하고 진도군 가뭄지역에 용수공급을 적극 지원하여 가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화합도 이루어 냈다.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노사의 적극 협력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09.3ha, 59억6000만원) 및 친환경에너지효율화사업(51여개, 72억원) 등 신규사업 수주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



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매입농지를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도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부모의 재산은 상속'이라는 부모 자식 모두의 고정된 관념으로 인해 보다 확실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의식변화가 선행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는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공기업이다. 해남·완도지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지사 여건과 환경을 최대로 이용한 자체 수익사업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해남·완도지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하여 유휴시설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검토하여 자체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협약문 체결



행복추진봉사단 마늘밭기 봉사활동



가뭄대책 지원



지역개발 지원

“현장에 답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는 말 실천

문상욱 지사장

▶ 지사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가정이 편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연차휴가 독려, 탄력근무제 시행, 모성보호시간 및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사진 콘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안전한 농업용수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 크로싱서비스(다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하여 저수지 방류 및 양수장 가동 등 용·배수예고를 실시하고 수질관리협의회를 통하여 수질보호 및 수질원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는 가뭄이 극심한 계곡면 덕정리 일원 약 5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송수관 1.5km와 간이양수장 3개소 신설 등 4단 양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 해남·완도지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 '상생과 협력으로 현안문제 해결,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슬로건으로 노사는 '노'와 '사'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노사 상호간 생산적 협력의 노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자발적으로 선도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 연령별·직급별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본래 취지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
- 2006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183건 350여액을 지원하여 부채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사



업으로서 부채 및 소득정도, 경영희생가능성 등을 조사·확인하고 지원 후에도 교육 등을 통하여 경영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벌써 배정액 44억원 전액이 소진되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직원들에게 바라는게 있다면

- 관내 저수지 89개소 양배수장 81개소 등 총 244개소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 답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3가지의 꼭 부탁드리고 싶다. 첫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꺼내어 공론화시켜 서로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 처리에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둘째,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업과 개인이 되려면 자기개발 노력을 평생학습 하여야 한다. 셋째,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청렴 윤리를 생활화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 받는 기업이 되도록 구성원 각자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노사불이의 정신으로 조직 활성화 꾀한다”

홍영삼 노조 지부장

▶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은 잘 이뤄지고 있는가
- 우리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고용안정은 잘 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서도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조합원들의 가정이 편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 등을 위해 연차휴가 적극 사용, 모성보호시간 및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

▶ 원·하청 상호협력 관계는

- 우리회사와 원·하청과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진행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하반기 1회씩 공사감독과 원·하청 현장대리인의 청렴의식 제고 및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무사고 현장운영을 위한 품질안전교육 및 청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하도급 공사계약체결시 공사비 지급은 하도급 직불 처리하여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노조를 이끄는 데 있어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권위를 누리거나 거들먹거리는 위치가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매사에 겸손하고 조합원을 우선시 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고도 열성적으로 도움



을 주고 있는 조합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 조합원 단합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 지사내 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조합원간 결속을 꾀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정도 나누고 가족이라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직급별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하나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있다면

- 지금이 노사간 화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더 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꾀하면 된다. 정점은 지속적으로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고 단점은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창한 계획이나 구호보다는 현재에 충실하고 전 임직원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뿐이다.

신봉우 기자